



지난 9월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의 실사단이 2023년 예천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예천군을 공식 방문했다. 수라봉 수석부회장과 수구마란 사무총장, 발손 경기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예천스타디움 및 실내육상훈련시설 등을 점검하고 준비 상황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아시아육상경기연맹에서는 우리 조직위의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만족했으며, 추후 선수단의 편의를 위한 사항과 원활한 경기 준비를 위한 일부 당부 사항이 있었다. 내년 대회까지 200여 일이 남은 현재, 예천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AA현지 실사단 예천 방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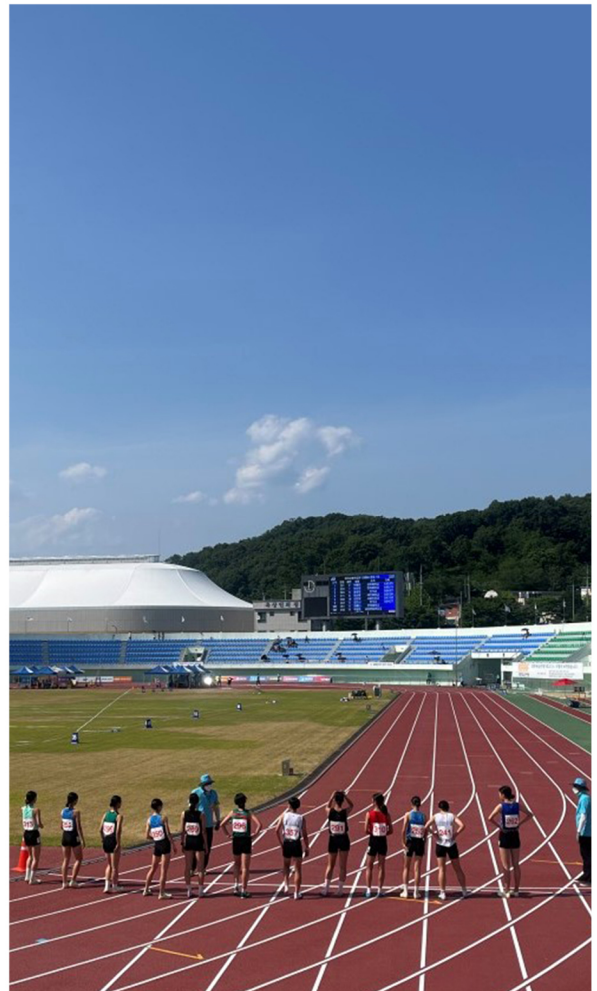
전국실업대학 대항 육상경기대회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22 전국실업대학 대항 육상경기대회가 예천에서 열려 800여명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뤘다. 실업부와 대학부로 나뉘 각각 진행되었으며 100m 허들, 릴레이 등 트랙경기와 장대높이뛰기, 도약 등 필드경기로 총 92개 종목이 치러졌다.



예천은 이번 대회를 코로나19제로(Zero) 대회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내년 U20 대회준비에도 참가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내 훈련장



2022 예천 곤충 축제

예천의 가장 큰 행사인 곤충축제가 지난 8월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4년마다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만나볼 수 있었다. 그간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즐길 수 없었던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가득 채워 구성하였다.

예천 곳곳에 설치된 행사장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멋진 여름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10일간 25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의 행렬로 침체되었던 도시의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예천군 효자면에 위치한 곤충생태원은 곤충축제의 메인 어트랙션 중 하나였다. 시가지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자연으로 둘러싸인 공원이 나온다. 1997년 설립되어 머리빨가위벌과 호박벌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쓰며, 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체험관 및 곤충 정원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의 놀이터, 곤충 생태원



축제 기간에는 '유리온실'에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었고, 곤충 정원에는 버블쇼, 인형극, 마술쇼 등이 준비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피크닉 쉼터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다.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찾아가 맑은 공기와 좋은 볼거리를 즐겨보면 어떨까.



한천체육공원 물놀이장



한천체육공원에는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물놀이장이 설치되었다. 늦은 저녁까지 개장하여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었으며, 해병대 전우회 보트체험 등 수상레저 활동도 가능해 전국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물놀이장에는 각종 놀이기구와 조압 벽천폭포가 설치되어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원한 계곡에 와 있는 느낌을 주었다.

예천읍 야경



예천읍 시가지에는 곤충 체험을 할 수 있는 힐링공원 및 곤충관과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미디어아트, 프리마켓, 포토존 등이 설치되었다. 매일 이어지는 지역 아티스트들의 버스킹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달궜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각종 공연, 분수쇼와 불꽃놀이로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어, 더운 낮시간을 피해 밤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았다.

예천읍 시가지





호명 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실개천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다양한 문화 공연의 무대이다. 2021년 새롭게 단장하여 맑게 흐르는 물과 계절마다 바뀌는 조경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게 한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는 물놀이하는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실개천을 따라 설치된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다.

도심 속의 자연 호명신도시 : 실개천





범우리 산책로

실개천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범우리 공원 산책로는 신도시 곳곳으로 이어져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해도 무관하다. 길마다 빠짐없이 설치된 조명과 치안 시설 덕에 특히 여름에는 밤길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버블런 (Bubble Run)

신도시에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준비되어있다. 지난 7월에도 1,500명의 인파가 '버블런'에 참여하기 위해 송평천으로 몰려들었다.



'버블런'은 거품 사이로 달리는 단거리 마라톤이다. 산책로를 따라 약 5km 구간에 4개의 버블존이 설치되었고, 각종 게임존과 가수들의 무대가 더해져 무더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었다.

20th Asian U20 Athletics Championships Yecheon

2023

06/04

-

06/07

Yecheon Stadium

RUN to YECHEON

여천
20th Asian U20 Athletics
YECHON Championships

Host



Organizers



20th Asian U20 Athletics
Championships Yecheon
Organizing Committee